

한국물류협회, 2006년 어떤사업을 펼치나!!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가 물류기업을 대표하면서 대한민국 기업의 물류혁신을 선도하는 협회로 다시 성장하기 위한 제 2의 도약을 실시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축적한 물류관련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물류발전에도 노력한다는 전략이다.

대한민국 물류선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2006 한국물류협회의 추진사업을 미리 살펴보았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한국물류대상과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는 11월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최고의 개인상인 금탑산업훈장을 허승조 GS리테일 대표이사를 비롯하면서 25개 기업과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면서 물류관련 최고의 상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약 300여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올해에는 500여개 업체가 물류대상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국제행사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컨퍼런스에는 발표기업으로 참가한 홍콩투자청을 비롯하여 외국관련 업체들이 50여명이 다녀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올해에는 외국의 학계와 기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물류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이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물류관련 업체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행사중의 하나가 “2006 한국 국제물류 및 유통산업전”이다.



▶ 2005년 제13회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



이 전시회는 3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물류관련 업체를 비롯하여 일반기업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12월 말까지 조기 참가신청을 할 경우 10% 할인을 해 주는데 30여개 업체가 신청을 해 놓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5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물류본부장 부서장 포럼은 올해에도 물류담당자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연회비가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대신, 싱가포르 및 홍콩의 물류관련 기업을 방문하는 해외 연수와 북한물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개성공단 시찰, RFID를 활용한 SCM, 환경물류 등 더욱 알차게 준비하였다. 또, 새로운 모임으로 제조, 유통, 물류업체 CEO를 대상으로 CEO 조찬회를 연 4회 개최하여 정·관계 물류정책 최고 입안자 및 물류부문 석학을 초빙하여 국제물류동향 및 국내 물류발전 방향을 논의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기업 물류관계자들의 요청에 의해 물류정책 토론회를 연 4회로 확대하여, ‘국내 물류산업 발전위한 중국의 경제성장 활용방향 모색’ 등 다양한 주제로 물류관계자에 지식을 전파할 계획이다.

물류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 그리고 물류관리사 보수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물류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각 업체별로 높아져 품질 높은 물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 오픈한 온라인 강좌는 과목수를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집체교육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강의실 확대와 최신식 기자재를 도입한다. 강사진도 각 기업의 물류담당 부서장을 추가로 선정하여, 생동감 있는 현장교육을 할 수 있게 했다.

국제적인 대외활동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APLF) 회장국으로서 회원국을 비롯한 한·중·일 물류관련 협회와의 국제적 관계를 긴밀히 하여 APLF사무국 운영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물류협회의 국제적인 대외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APLF 동경총회에서는 회원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만장일치로 APLF 회장국으로 재 추대되는 영광도 안았다. 모두가 서병륜 한국물류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류협회는 지난 2003년 APLF 회장국으로 선임되면서 홈페이지(www.aplf.net)를 개설하고, 비회원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회원국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또 지난 11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의 물류분과위원회의 의장국으로서 그 위상을 높여왔다.

APLF는 회원국간의 로지스틱스 교육과정 및 교수법, 교육자료의 상호 협조적 교환 및 관련활동 개선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회원국간의 지식기반적 로지스틱스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로지스틱스의 공동가치를 공유하고 회원국간의 상호 유대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APLF의 회원국과 한·중·일 물류협회간의 의사소통은 영어로 진행되어, 원활한 업무진행이 어려웠으나, 각국의 언어에 능통한 인력을 충원하여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사무국으로서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일본로지스틱시스템 협회는 물론 APLF회원국과의 국제물류 표준화를 위한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올해에도 APLF사무국으로서 회원국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오는 6월초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제5회 한중일 물류교류회와 10월 북경에서 개최될 제5회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물류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리고 9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APLF 도쿄 회의 등 물류관련 회의와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준비를 할 계획이다.

해외연수로 올해에는 제33차 두바이 BM연수(2월), 제34차 동남아 BM연수(4월), 제35차 유럽BM연수(6월), 제36차 일본 BM연수(9월), 제 37차 미국 BM연수(10월) 등 총 5회의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첫 해외연수인 두바이 BM연수는 오는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방문한다. 미국 CSCMP의 주최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두바이 국제물류 컨퍼런스 참가와 함께 두바이 투자 개발청, 두바이 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 및 물류단지, 현대 모비스 물류단지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두바이 국제물류컨퍼런스는 전세계적으로 SCM계의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 규모의 물류전문컨퍼런스로 지난해 1월 미국에서 개최된 "Promat 2005" 수준의 행사를 자랑한다.

제34차 동남아 BM연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물류거점지역으로서의 견학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가장 최대의 해외BM연수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BM연수는 세계 3대 물류전시회의 하나인 "LOGIS-TECH TOKYO 2006" 전시회를 비롯하여 우수물류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연수의 경우 2004년과 같이 조기 마감일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연수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꾸준한 관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출판관련 사업으로 물류실무 용어집, 알기쉬운 3PL지침서 등 물류관련 도서를 출판할 예정이다.

(사)한국물류협회가 지난 21년간의 모습에서 새롭게 변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물류협회 회원사를 비롯하여 물류관계자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관제탑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물류**